

# 10월의 사양관리

♣ 국립축산과학원 축산자원개발부 낙농과



## 일반 사양관리

**이**제 완전한 가을이다. 지난 여름의 폭염과 태풍으로 인한 폭우로 너무 많은 비가 내려 옥수수사일리지 작업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며, 옥수수 수확시기가 늦어 사일리지의 품질저하가 우려된다. 그리고 밤낮의 일교차가 커지는 시기이므로 야간에 갑작스런 기온저하에 대비하여 보온관리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특히 환절기 송아지 관리에 만전을 기한다. 담아두었던 옥수수사일리지를 이용하는 시기이면서 월동용 조사료인 볏짚을 확보하는 시기이다. 볏짚은 비를 맞으면 기호성과 영양분이 크게 떨어지므로 비 수확 직후 최대한 비를 맞지 말고 잘 말

려 신속히 수거하거나 볏짚의 사료가치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암모니아 처리 또는 생볏짚곤포사일리지를 만들어 보관성 및 사료가치를 높여 부패 및 곰팡이 발생으로 인한 손실을 막고 소의 생산성을 높인다. 동절기를 대비하여 우사, 송아지방, 분만실 등을 수리하고, 여름철에 사용하던 그늘막, 스프링쿨러, 송풍기 등을 철거, 또는 점검하여 내년에 사용할 수 있도록 잘 보관하여 둔다. 바람직한 축사환경 관리를 위해 낮에는 햇볕이 충분히 들어오도록 하고, 항상 통풍 및 환기가 잘되도록 한다.

## 방역 및 위생관리

**소** 바이러스성 설사병(BVD-MD), 소 전염성 비기관염(IBR) 등은 밤낮의 일교차가 심한 환절기에 자주 발생되므로 축사내 환기상태를 수시로 점검하고 호흡기 백신을 송아지에게 실시한다. 소 바이러스성 설사병(BVD-MD)은 급성, 만성인 전염병으로 식욕감퇴, 설사, 탈수, 호흡기 증상, 구강염, 발열(39.5~42℃), 유·사산 등 다양한 증상을 나타낸다. 예방으로는 소 바이러스성 설사-소 전염성비기관염-파라인플루엔자-3 바이러스의

3종 혼합예방약이 있다. 소 전염성 비기관염(IBR)은 접촉 및 오염된 사료, 물 등에 의하여 전염되며, 주요증상으로는 식욕부진과 유량 감소, 열(39~40℃)이 있고, 호흡곤란과 심한 기침 등의 증상을 나타낸다. 예방책으로는 병에 걸린 가축은 격리 수용하고 오염된 축사를 소독하고 예방백신을 접종한다. 질병은 발생하기 전에 예방이 우선이다. 깨끗하고 청결한 축사관리 및 정기적인 소독 실시에 최선을 다한다.

## 사양관리

**사**료가격의 상승은 낙농가의 경영압박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배합사료 가격은 지속적으로 인상이 예상되고, 조사료 역시 가격상승과 물량확보가 쉽지 않아 조사료 확보에 바상이 걸려있다.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겨울철 유희농경지를 이용하여 동계사료작물 재배 생산으로 지금 조사료의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하는 때이다. 그러나 자급조사료를 생산할 토지를 임대하기가 쉽지 않고 조사료 생산장비에 대한 기계화가 미비되어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무한경쟁시대에 사는 우리 낙농가들이 생존할 수 있는 길은 두당 생산성 향상과 생산비 절감 외에는 달리 대안이 없다. 우수한 후보축 확보는 목장의 성공요인 중 하나이며, 우수한 육성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생후 4개월령부터 6개월령까지는 일반적으로 중송아지 사료를 구입해서 급여하는 것이 좋고 생후 6개월

령 때에는 수송아지와 암송아지를 격리 수용해야 하며 이때 구충제를 사용하여 내부기생충을 제거하도록 한다. 육성우는 월령보다는 체중을 기준으로 하여 첫 종부를 시키는데 종부에 알맞은 체중은 340~360kg이다. 적당한 사양관리에 의하여 생후 14~15개월령에 체중이 350kg 전후로 도달하게끔 육성하여 종부시키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 여름철 고온기에 높여 주었던 영양소 수준을 계절이 맞게 조정해 줄 필요가 있다. 조사료 종류와 농후사료 부분을 변경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두고 서서히 변경하여 갑작스런 사료변경으로 인한 장애를 예방한다. 특히 분만 3주전부터 분만후 3주까지의 전환기 동안에는 사양관리에 유의함으로써 대사성 질병의 예방과 생산성 극대화가 되도록 한다.

## 초지 및 사료작물

**최**근 이탈리아라이그라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탈리아라이그라스는 출수기 이후에도 잎이 많아 사료품질이 우수하고, 가축 기호성도 매우 좋은 반면, 추위에 약한 단점이 있었으나 최근 국립축산과학원에서 육성된 다수성 품종인 "화산 101호"는 추위에 강하여 한강 이남 전역에서 재배가 가능하여 재배면적이 확대되고 있다. 이탈리아라이그라스의 파종시기가 남부지방 10월 상순, 중부지방 9월 하순, 중·북부 지방은 9월 중·하순이므로 파종시기가 늦지 않도록 한다. 이모작으로 재

배한 유채나 연맥 등 사료작물은 양질의 조사료로 수확량이 최대가 되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고 이미 수확된 사일리지, 헤일리지 또는 건초 등은 보관 및 사용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준비를 한다. 옥수수사일리지를 개봉하여 이용할 경우, 사일리지는 공기에 닿는 순간부터 2차 발효가 시작되므로 배출면을 수직이 되게하여 공기가 사일리지 내부로 유입되는 것을 최소화 해주어야 한다. 또한 이용한 후 비닐로 잘 덮어 두어 공기의 유입을 최소화되도록 해야 한다. ☺

